

#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추진

### 도, 인문정신 계승 현대적 재창조 위해 인문정신 함양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는 조선시대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했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 공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엄숙하고 굳게 닫힌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향교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펼치는 사업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북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국비 2.7억원을 확보해 전주시 등 8개 시군, 8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전주향교(전주시)-오감(五感)으로 느끼는 인의예지(仁義禮智) PLUS, 전주향교, 임피향교(군산시)-드림트리스쿨, 무성서원(정읍시)-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 남원향교(남원시)-향교동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 김제향교(김제시)-해동소학 어린이 향교 아카데미, 고산향교(완주

군)-향교 아틀리에, 임실향교(임실군)-어이 유생(儒生)! 유생(乳生), 순창향교(순창군)-전통예절 및 선비문화 체험사업 등이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유형은 체험형, 교육형, 답사형, 공간활용형 4가지로 나뉜다. 체험형은 유교의례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비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교육형은 인성·예절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답사형은 관련 역사인물과 연계 유적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문화재 유렵길, 즐김길이며 공간활용형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 등

교육문화 행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국악공연 등으로, 문화재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이 지역공동체 문화의 구성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사라져 가는 인문정신을 회복하고 청소년의 인성을 배양하는 인문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 현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인문정신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지속해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도, 우기대비 위임국도 지방도 일제정비 실시

###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전북도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및 농지침수 등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운전자에게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도로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으로는 위임국도 및 지방도 70개노선 2,156km이며 보수인원 26명과 덤프 등 장비 16대를 투입하여 주요 배수로, 절개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배수관, 측구, 도수로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노면침하, 용기, 포트홀 등 파손된 구조물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기철 이전 공사현장의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정비 및 인력을 활용한 기능반을 편성해 우기철 집중 계기되는 운전자와 도로변 주민들의 불편 상황을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폭우·장마 빈도가 적었던 점을 고려해 위험지대의 전반적 정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스키로더 1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팀을 3개팀으로 편성해 추진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기철 초동 대처에 초점을 두고 사전대비 강화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교통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한 도로 환경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 올해 11개교로 확대

전북도는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북농악의 저변확대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를 지난해 7개교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에는 11개교를 지정 확대 운영한다.

전승학교 운영 추진배경은 미래의 꿈나무인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문화의 소중한 전북농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농악 전수조교 이수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전북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 30개 대표 목록 중 7개 전북농악(국가지정 2, 도 지정 5)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농악의 본 고장이다. 지난해에는 익산 합영여고와 정읍 입암중, 남원 국악예술고, 김제 덕암정보고, 임실 삼진중, 고창 강호향공고, 부안 영전초 등이 전승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에 공모를 통해 무주 무봉초와 진안 백운초, 장수 백화여고, 순창 동산초 등 4개교를 선정해 지난해 운영중인 7개교와 함께 총 11개교가 운영된다.

/인재용 기자



### 도내 자치단체장도 한표 행사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서신동 동아일일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9투표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부부도 군산시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9투표소를 찾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서신동 동아일일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9투표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류진영 여사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문동신 군산시장 부부도 군산시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9투표소를 찾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 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촉진 도모

### 2015년 3월 조례 제정 따라... 올해 도내 기업 시험생산 등에 사용수수료 지원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도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해 장비 공동 활용 촉진 및 기업과 기관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북도는 지역 R&D수행의 핵심인 연구개발장비의 비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극복하고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담은 '전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를 2015년 3월에 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도 조례에 의거해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지정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지난해에는 도내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보유 장비 2,353점에 현황/실태조사 실시해 장비 정보DB를 구축해 현재 운영중이다.

올해는 '장비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에 사용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장비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http://jjbangb.ijtp.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신청 시 이용료 5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용신청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기기(태블릿, 스마트폰)로 가능하다. 장비보유기관과 이용 협의 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를 필요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장비 이용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관의 장비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15일부터 인문주간 행사 개최

전주시가 자체 인문주간을 선정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인문주간을 선포,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67개 전주인문학365 네트워크 기관·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오감인문학 축제인 '제2회 전주시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인문학 쪽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전주만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강좌와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인문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인문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오후 2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전주를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하는 선포식이 열린다. 또, 인문주간 개막행사로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와 책의 노래 서울랜드의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인문학콘서트가 열린다.

특히, 인문학콘서트는 이철환 작가의 강연과 서울랜드의 친숙한 노래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감성충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7일에는 오후 2시 전주 시립생태학습관 강당에서 '자연, 가족과 소통하는 힐링밤상' 주제의 밤상인문학이 진행된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밤상인문학 강연은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고 도심 속에서 만나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건강한 먹거리 교육문

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유리하는 도시농부'의 저자이자 푸드스타일리스트, 식생활지도사인 박순희 강사가 자신의 텃밭농사 7년의 경험담과 수확한 채소를 이용한 요리방법, 마크로비오티 건강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는 전주한옥마을의 골목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 관습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전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골목길인문학이 진행된다.

'한옥마을 전통꽃담의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골목길인문학은 한옥마을의 문화 및 역사를 30여년 동안 연구한 이종근 강사(새전북신문 문화교 육부국장)와 함께 경기전의 사교석담 등을 함께 산책하고, 한옥마을 일대 골목길의 꽃담들을 둘러보며 선인들의 철학과 지혜, 숨결이 깃든 꽃담의 유래와 그 숨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현장체험 형식으로 꾸며진다. /김민기 기자

## 5·9 촛불대선 이모저모

### 100세 넘는 고령 유권자들, 한 표 행사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북 지역에서는 107세 고령 유권자의 투표부터 유권자가 쓰러지는 등 다양한 선거 풍경을 볼 수 있었다.

◇...1910년생으로 올해 107세를 맞은 허운섭 할아버지는 오전 10시 40분께 자택에서 예약한 이시복 택시를 타고 전주 완산고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았다.

허 할아버지는 선거 사무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에 단 한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허 할아버지는 "지난 1984년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며 "빨치산이 내려와 투표함을 빼앗으려 한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총 들고 있는 바람에 뒷걸음질 쳐서 돌아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살림꾼을 뽑는데 나의 작은 한 표가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돼 우리나라가 걱정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투표를 계속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군산 수송동 한 투표소서 고령 유권자가 쓰러져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

### 투표소 잘못 찾아와 소란 피우는 일도 발생

◇...군산시 수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고령의 유권자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산시 수송동의 투표소를 찾은 고모(86)할머니는 갑자기 투표 대기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씨는 바다에 쓰러진 충격으로 눈가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모(83)씨는 오전 6시 22분께 군산시 조촌동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 했지만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었다"는 선거사무원의 말에 격분했다. 그는 "나 여기서 투표할 거다. 내 투표용지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관할 투표소로 안내했다.

◇...올해로 만 107세가 되는 오정자(군산시 흥남동) 할머니는 이날 오전 10시께 흥남동 제1투표소인 흥남동주민센터를 홀로 찾아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돌아 갔다.

이어 올해 만 102세인 홍영준 응(군산시 장미동)도 오전 10시30분께 아들 흥용덕씨(군산시청 수도과)와 함께 일명동 제1투표소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와 투표를 하고 돌아갔다.

◇...익산시 왕궁면에 거주하는 29년생 박모씨는 무문과열로 한달 넘게 삼재고려병원에 입원 중 투표를 위해 병원수송차량을 이용해 왕궁면 3투표소에서 소중한 표를 행사했다.

◇...익산시 팔봉동 창해복지재단 청록원 소속 인솔교사 박모씨 등 2명은 중증장애인 20명을 스타렉스를 이용해 투표장으로 이동을 지원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했다.

◇...군산시 옥도면의 비안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중단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낱씨 속에서 위엄한 선기를 타고 섬으로 들어와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남원지역에서도 최고령자가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시 노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1912년생 김남강 할아버지는 9일 오후 2시, 직접 자전거를 타고 노암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진안군에서 최고령자가 불편한 몸으로 투표에 참가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진안군 안천면 과목정 1길 10번지에 살고 있는 김임분(108세, 1909, 12월 10생) 할머니는 이날 오후 2시10분 이 마을 송학용 이장의 부축을 받으며 안천면 제1투표소에 투표를 마쳤다.

김 할머니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이를 먹었다고 투표를 포기하면 대통령이 일을 잘 못 해도 어떻게 나라를 수 있겠나"며 "우리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하고 난 후 잘 하면 잘 한다고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 맞지 않겠나"고 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한편 전북지역엔 이날 오후 8시 기준 77.8%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재용 기자·김민기 기자·장현기 기자·우태민 기자·유영철 기자

## “우리들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요”

### 전주·군산·진안 등서 청소년 모의투표소 열려

대통령선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소에 나섰다.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모의투표소가 열렸다. (관련사진 5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전주 YMCA가 준비한 행사다. 18세 이상 참정권을 요구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곳 외에도 군산과 진안 등 3곳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모의투표지만 절차는 실제 선거법에 따라 진행된다.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 촬영이나 투표용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 전주YMCA는 이날 모의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를 400장 준비했지만 오후 2시 기준 243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어른들 예상보다 크다는 방증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를 다음날인 10일까지 취합한 뒤 실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한 득표한 후보에게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모의투표에 참가한 김민진(전주기전중 3년)양은 "청소년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인성이 갖춰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특정 후보 지지 같은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기 기자